

신라 헌덕왕대 副君의 성격과 貞嬌夫人*

- 김헌창의 亂과 관련하여 -

김 목 동**

I. 머리말
II. 왕위계승권자와 副君 秀宗
III. 헌덕왕의 次妃와 貞嬌夫人
IV. 맺음말

국문초록

新羅 東宮은 지속적인 발굴 성과와 함께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신라 동궁의 성격과 관련하여, 현재 동궁과 月池宮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궁과 월지궁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주제인 副君 秀宗과 太子와의 관계, 太子妃 貞嬌의 혼인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부군의 성격은 憲德王이 자칭하였던 副王과 동일한 것으로, 차기 왕위 계승권자인 태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교는 헌덕왕의 次妃로서 맞이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모두 김헌창의 亂과 관련되었다고 하겠다. 수종을 부군으로 삼은 것이 그 난이 신속히 진압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귀

* 본 논문은 대구사학회에서 주관한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제166회 정기발표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ekmdong@naver.com.

결되었고, 그 난에 대한 사후 대응책으로 忠恭의 딸 정교부인을 헌덕왕의 차비로 맞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수종을 부군으로 삼았던 이유는 수종이 上大等を 역임하였고, 부왕의 사례를 遵用하였던 것이다. 부왕은 헌덕왕이, 그 자신이 왕위계승권자의 지위로 있었음을 공식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이 만들었던 지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태자의 거소 공간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인 ‘國王의 동쪽 宮闕’로 변화된 동궁인 월지궁에 부군 수종이 入宮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헌덕왕이 정교를 차비로 맞이한 것은 哀莊王대부터 興德王대까지 정치를 주도하였으며 유력 權力者들의 丈人이었던 충공의 子女였다는 점이다.

이는 王權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대책이었으며, 김현창의 亂에 功이 있는 충공에 대한 論功行賞의 의미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부군 수종의 월지궁 입궁, 정교의 혼인 문제 등을 이유로 인하여 동궁과 월지궁이 서로 다르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 주제어

동궁, 태자, 부왕, 부군, 정교, 김현창

I. 머리말

慶州 월성 동북편에 소재한 연못과 그 주변 건물지는 1975년 3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월지 서편과 남편의 건물지군, 월지 내의 호안석축과 인공섬 등이 확인되어 동궁과 월지의 구조 및 양상 등을 알 수 있었으며, 3만여 점에 달하는 유물은 통일신라의 문화와 신라 왕경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¹⁾ 이후 雁鴨池의 명칭은 月池이며, 東宮은 月池宮으로 불려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며.²⁾ 그 이래로 안압지는 月池이며, 태자궁인 동궁은 月池宮으로 이해되고 있다.

신라 동궁이 창조될 무렵,³⁾ 중국 왕조들에서는 이미 동궁이 유교 예제상 태자궁이란 관념으로 확고하게 성립해 있었으며, 신라에서는 유교적 관념의 왕권과 유교 의례가 강화되어, 신라 동궁은 ‘태자궁’으로 건립된 것이었다.⁴⁾ 더하여 신라 동궁은 경덕왕 4년(745)에서 애장왕 5년(804) 사이에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태자의 거소 공간을 포함한 ‘동쪽에 위치한 국왕의 궁궐’이라는 의미로 변화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제시되었다.⁵⁾

하지만 신라 동궁의 성격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문제가 있는바, 그것은 東宮과 月池宮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궁은 월지궁과 같은 궁궐로 보고 있으나, 서로 다른 궁궐이라는 견해들도 제시된 상황이다.⁶⁾ 이처럼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는 주요한 이유

-
- 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東宮과 月池(III) 발굴조사보고서』, 2019, 650쪽.
 - 2) 韓炳三, 「雁鴨池名稱에 關하여」, 『考古美術』 153, 한국미술사학회, 1982, 40~41쪽 ; 고경희, 『안압지』, 대원사, 1989, 13~20쪽.
 - 3)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9년, “秋八月, 創造東宮, 始定内外諸門額號.”
 - 4) 홍승우, 「문헌으로 본 新羅의 東宮과 그 운영」, 『문헌으로 보는 신라의 왕경과 월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
 - 5) 김목동, 「新羅 東宮의 성격과 그 변화」, 『大丘史學』 150, 대구사학회, 2023.
 - 6) 최상기, 「신라의 東宮과 月城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동향 -동궁 관련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08, 한국고대사학회, 2022 ; 이현태, 「경주 동궁과 월지」의

는 헌덕왕대의 副君 秀宗과 太子의 관계, 太子妃 貞嬌의 혼인 기사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다.⁷⁾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諸 견해는 부군이 태자인지 아닌지를 근거로 정교의 혼인 문제를 추정하였다.⁸⁾ 이에 더하여, 헌덕왕 14년(822) 3월에 일어난 김현창의 亂과도 연관되었음을 看過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김현창의 亂이 대규모로 발생하기 以前 같은 해 정월에 秀宗을 副君으로 삼았고, 김현창의 亂이 일어나고 진압된 3월에 태자비 정교의 혼인 기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우선은 헌덕왕이 수종을 부군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다음으로 정교부인의 혼인 대상자는 누구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모두 김현창의 亂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이 신라 東宮과 月池宮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II. 왕위계승권자와 副君 秀宗

신라 東宮이 月池宮으로 이해되었던 근거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헌덕왕 14년(822) 1월에 수종을 副君으로 삼아 月池宮으로 入宮토록 하였고, 祿眞傳에서 수종을 儲貳, 儲君이라고 호칭하였다. 儲貳, 儲君 등은 太子의 異稱이므로, 일반적으로 부군은 태자의 의미로 보고 있고,⁹⁾ 헌덕왕에게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어(無嗣子),

성격을 둘러싼 논의와 쟁점, 『先史와 古代』 72, 한국고대학회, 2023 등에서 신라 동궁에 관한 그간 연구의 성과와 쟁점들을 자세하게 정리·분석한 후에 그 연구의 방향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7) 이에 대하여 장을 달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8) 홍승우는 정교나 그의 혼인 자체를 고찰하기보다는 부군이 태자인가 아닌가에 근거하여 정교의 혼인 상대자를 추정하였고, 여러 기록상의 불일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던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홍승우, 「헌덕왕대 太子妃 貞嬌와 태자」, 『新羅文化』 5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8b, 174쪽).

수종을 儲貳로 삼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래의 『三國史記』의 기사가 그것이다.

A-1) (헌덕왕 14년) 母弟인 秀宗을 副君으로 삼고, 月池宮에 들어가게 하였다.¹⁰⁾

2) (헌덕왕 14년) 국왕에게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으므로(無嗣子), 母弟인 秀宗을 儲貳에 삼아 月池宮에 入宮하게 하였다.¹¹⁾

하지만 헌덕왕 14년 3월 “聘角干忠恭之女貞嬌爲太子妃” 기사에서¹²⁾ 정교를 태자비로 삼았다고 하였는바, 정교와 혼인한 태자는 부군 수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되었고,¹³⁾ 부군은 태자와 같은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고 하였다.¹⁴⁾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¹⁵⁾ 일정 기간 부군

9) 『三國史記』 권12, 임인 헌덕왕 14년조에서 부군을 태자로 기술하였다. 부군이 태자의 이칭 혹은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122쪽; 木村誠, 「新羅の宰相制度」, 『人文學報』 118, 1977, 36쪽; 崔在錫, 『韓國古代社會史研究』, 一志社, 1987, 182쪽; 金昌謙, 「新羅時代太子制度의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13, 한국상고사학회, 1993, 166쪽; 이승현, 「新羅의 東宮制度」, 『韓國古代史研究』 55, 한국고대사학회, 2009, 232쪽; 윤경진, 「신라 興德王代 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 -三韓一統意識 출현의 일 배경-」, 『史林』 52, 수선사학회, 2015, 113쪽; 손흥호, 「9세기 전반 신라의 정치동향과 충공의 역할」, 『韓國古代史研究』 83, 한국고대사학회, 2016, 309~313쪽; 「신라 하대 초기의 정치과정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79~80쪽; 홍승우, 「신라 副君과 月池宮」, 『東洋學』 7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8a, 72~77쪽.

10)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4년, “以母弟秀宗爲副君, 入月池宮.”

11) 『삼국사기』 권45, 열전5, 녹진전, “國王無嗣子, 以母弟秀宗爲儲貳, 入月池宮.”

12)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4년조.

13) 李基東, 「新羅 興德王代의 政治와 社會」, 『國史館論叢』 21, 국사편찬위원회, 1991, 115~116쪽; 金昌謙, 앞의 논문, 1993, 167쪽; 朱甫墩,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51, 한국고대사학회, 2008, 241~243쪽; 曹凡煥, 「新羅 下代 憲德王의 副君 설치와 그 정치적 의미」, 『震檀學報』 110, 진단학회, 2010, 34~35쪽; 김병곤, 「신라 헌덕왕대의 副君 秀宗의 정체성과 太子」, 『東國史學』 55, 동국사학회, 2013, 186쪽; 신석열, 「신라 헌덕왕대의 정치과정과 정교부인의 혼인 문제」, 『新羅文化』 4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6, 175~176쪽; 홍승우, 앞의 논문, 2018b, 178~179쪽; 이현태, 「신라 臨海殿과 月池宮의 성격 재론」, 『사학연구』 140, 한국사학회, 2020, 61~65쪽

14) 井上秀雄,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433쪽; 曹凡煥, 앞의 논문, 2010, 35~

이외에 별도의 태자가 공존하였으며, 부군은 東宮과 다른 별도의 궁궐인 月池宮에 입궁한 것이라 이해되고 있다.¹⁶⁾ 그러므로 부군과 태자의 관계는 월지궁의 성격이 무엇인지, 나아가 동궁과 월지궁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여기서 부군이란 호칭은 제한된 시기에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종을 부군으로 삼은 시점 전후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태자가 아닌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에¹⁷⁾ 주목하여, 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822년 정월 王弟로서 상대등을 역임한 수종이 처음 두어진 부군으로 취임한 후 동시에 월지궁에 입궁하였던 것이나, 또 다른 王弟인 충공이 상대등으로 취임함과 관료의 인사권을 장악한 것 등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진 김헌창의 亂과 관련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¹⁸⁾

먼저 ‘특수한 사정’이란 무엇이였을까? 헌덕왕 14년(822) 3월 웅천주 도독 김헌창은 대규모의 난을 일으켰다. 그 규모는 전 국토의 1/2 정도에 이를 정도로, 무진주, 완산주, 청주, 사벌주 등의 4개 주와 국원경, 서원경, 금관경 등의 3개 소경에서 가담하였다.

B) (헌덕왕 14년) 3월에 웅천주 도독 김헌창은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국호는 長安이라 하고 연호는 慶雲 元年이라 하였다. 무진주·완산주·청주·사벌주 4개 주 도독과 국원경·서원경·금관경 3개 소경의 사신과 여러 군현의 수령들을 위협하여 자신의 아래에 예속시켰다.¹⁹⁾

36쪽 ; 김병곤, 앞의 논문, 2013, 185~192쪽 ; 신석열, 앞의 논문, 2016, 176쪽.

15) 이에 대하여 장을 달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6) 이에 대하여 장을 달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7) 홍승우, 앞의 논문, 2018a, 72쪽. 후보돈은 태자제도가 정착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군이 부군이라는 지위를 새롭게 창안해 낸 이유는 차기 왕위계승자를 미리 확정해야 할 어떤 사정이 내재하였던 것이라 하였다(朱甫墩, 앞의 논문, 2008, 241쪽).

18) 朱甫墩, 앞의 논문, 2008, 243쪽.

19)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4년, “三月, 熊川州都督憲昌, 以父周元不得爲王反叛, 國號長安, 建元慶雲元年. 舊武珍·完山·菁·沙伐四州都督 國原·西原·金官仕臣及

위의 사료에서 김헌창이 난을 일으킨 이유는 그의 父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불만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그 원인은 헌덕왕 三兄弟 중심의 집권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배제된 결과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²⁰⁾ 또한, 김헌창의 亂이 대규모였음에도, 그 규모에 비하여 너무나 쉽게 진압되었는바,²¹⁾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고 있다.

첫째는 김헌창 자신이 적극적으로 왕실을 공격할 의사가 없었고, 진압군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하였으며, 진압군이 신속히 편성되자 방어전에 소극적으로 나섰던 결과라고 하였다.²²⁾ 둘째는 사전 준비가 미비한 김헌창의 주력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웅천주의 웅진성에 주둔하였고, 반란군 부대는 각 지역에서 봉기한 세력으로 분산적이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였으며,²³⁾ 셋째는 분열상을 보인 ‘중앙정부’가 합심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난이 예상외로 쉽게 진압되었다고 하였다.²⁴⁾

하지만, 그 난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헌덕왕 三兄弟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헌덕왕을 정점으로 하는 세력은 그 난으로 인하여 발생할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 더구나 나라 안에 대규모 반란이 발생하였고, 그 난의 원인을 헌덕왕 측에서 제공하였으며,²⁵⁾ 그 난이 짧은 기간 안에 진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기존 견해들은 헌덕왕 三兄弟의 역할을看過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 난을 진압한 ‘중앙정부’의 역할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

諸郡縣守令, 以爲己屬.”

20) 朱甫墩, 앞의 논문, 2008, 237~248쪽.

21) 朱甫墩, 앞의 논문, 2008, 259쪽.

22) 黃善榮, 「新羅 下代 金憲昌 亂의 性格」, 『釜山史學』 35, 부산사학회, 1998, 18쪽.

23) 朱甫墩, 앞의 논문, 2008, 259~260쪽.

24) 朱甫墩, 앞의 논문, 2008, 260쪽.

25) 김헌창의 난이 일어난 원인 중에서 하나는 헌덕왕 三兄弟 중심의 집권화 과정에서 나온 결과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인물들의 불만이 크게 일어나자, 이를 김헌창이 적절히 이용하여 난을 일으킨 것이라 하였다(朱甫墩, 앞의 논문, 2008, 243~248쪽).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 측에서 김헌창과 그 불만 세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음을 事前에 어느 정도 認知하였을 가능성과 함께, 중앙정부의 대응은 헌덕왕 三兄弟와 연관해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기사를 검토해 보자.

C-1) (헌덕왕 14년) 3월 청주 도독 향영은 몸을 빼 추화군으로 달아났으며, 한산주 · 우두주 · 삼랑주 · 패강진 · 복원경 등은 김헌창의 역모를 미리 알고(先知) 병사를 동원하여 스스로 지켰다.²⁶⁾

2) (헌덕왕 14년) 3월 18일에 완산주 장사 최웅과 주조 아찬 정련의 아들 영충 등이 왕경으로 도망쳐 와서 김헌창의 반란을 고하자, 왕이 즉시 최웅에게 급찬 속함군 태수의 직위를, 영충에게 급찬 관등을 주었고, 장수 8인을 파견하여 王都의 8방(方)을 지키게 하였으며, 그런 후에 군대를 출진시켰다.²⁷⁾

C-1)에서 “先知”라는 표현 속에는 김헌창이 자신의 舉兵 사실을 이 지역의 지방관에게도 미리 알리며 참여하여 주길 종용하였던 것이며, 이 지역의 지방관은 그 난이 웅천주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음을 事前에 인지하고서 그 推移를 지켜보려는 입장이라고 하였다.²⁸⁾ 김헌창의 난을 진압한 중앙정부 측에서 오랜 기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예의주시하였을 수도 있으며,²⁹⁾ 金周元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³⁰⁾

C-2)에서 長史 崔雄과 州助 阿滄 正連의 아들 令忠 등이 王京으로 도망쳐 와서 김헌창의 반란을 고하자, 헌덕왕은 즉시 최웅에게 級滄 速含郡 太守 직위를, 영충에게는 級滄 관등을 주었고, 장수 8인을 파견하여

26)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4년, “靑州都督向榮, 脫身走推火郡, 漢山 · 牛頭 · 歙良 · 溟江 · 北原等, 先知憲昌逆謀, 舉兵自守.”

27)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4년, “十八日, 完山長史崔雄 · 助阿滄正連之子令忠等, 遁走王京告之. 王即授崔雄位級滄 · 速含郡太守 令忠位級滄, 遂差貢將八人, 守王都八方, 然後出師.”

28) 朱甫墩, 앞의 논문, 2008, 249쪽.

29) 朱甫墩, 앞의 논문, 2008, 238쪽.

30) 朱甫墩, 앞의 논문, 2008, 240쪽.

王都의 八方을 지키게 하였으며, 그런 후에 군대를 출전시켰다. 이는 마치 이러한 대책들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듯이,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³¹⁾ 신라에서는 이미 문무왕 13년(673)부터 州에 2명, 郡에 1명씩 외사정을 두고서,³²⁾ 지방의 행정통제와 관리의 감찰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중앙정부 측에서 반란이 있을지 모른다고 예의주시하며 감시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김헌창과 불만 세력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어느 정도 認知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³³⁾ 그 난에 대한 관련 대책들이 신속히 시행되었다. 여기에 신라의 상황은 김헌창의 난이 일어나기 以前 시기부터 이미 평탄치 않았음을 다음의 기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D-1·2·3). 나아가 헌덕왕은 822년 그 당시 50대 중반 이상의 高齡으로,³⁴⁾ 차기 왕위계승권자인 태자를 冊封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D-1) (헌덕왕 13년) 가을 7월에 패강 남천의 두 돌이 싸웠다.³⁵⁾

2) (헌덕왕 13년) 겨울 12월 29일에 큰 천둥이 쳤다.³⁶⁾

3) (헌덕왕 14년) 2월에 눈이 5척이나 내려서 나무들이 말라 죽었다.³⁷⁾

4) (헌덕왕 14년) 이때 忠恭 各간이 上大等이 되어, 政事堂에 앉아 중앙과 지방 관리의 인사를 銓衡하다가 퇴근하여 병에 걸렸다. …… 各간 兪公이 이에 醫官을 사절하여 보내고, 수레를 준비하여 타고 王室로 들어갔다. 헌덕왕이 말하기를, “卿은 일정한 기간에 약을 먹으리라고 생각하였는데, 무슨 일로 조정에 왔는가?”라고 하였다. (兪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臣이 녹진의

31) 주보돈은 분열상이 보이던 중앙정부에서 합심하여 신속히 대응하여, 김헌창의 난을 예상외로 너무나 쉽게 진압할 수 있다고 하였다(朱甫墩, 앞의 논문, 2008, 260쪽).

32)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3년, “始置外司正, 州二人郡一人.”

33) 하지만 헌덕왕이 대규모 반란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김헌창의 난을 진압한 후에 헌덕왕이 이전과는 비교되는 정책들을 행하였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34) 손흥호, 앞의 논문, 2021, 76쪽, 각주 90.

35)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3년, “秋七月, 溟江南川二石戰.”

36)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3년, “冬十二月二十九日, 大雷.”

37)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4년, “二月, 雪五尺, 樹木枯.”

말을 들으니, 약이나 침과 같습니다. 어찌 용치탕을 마시는 것으로 그칠 뿐 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윽고 왕에게 일일이 아뢰었다. 왕이 이르기를 “과인이 임금에 되고, 경이 재상이 되어서, 이와 같은直言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儲君(수종)으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月池宮으로 가라”라고 하였다. 儲君이 이를 듣고서, (궁궐에) 들어와 하례하며 말하기를 “일찍이 임금이 明하면 신하는 直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또한 국가의 아름다운 일입니다.”라고 하였다.³⁸⁾

이처럼 김헌창과 그 불만 세력들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으며, 신라의 상황은 김헌창의 난이 일어나기 以前 시기부터 이미 평탄치 않았으며, 차기 왕위계승권자인 태자를 冊封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상대등으로 임명된 충공은 인사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D-4). 그렇다면, 부군은 차기 왕위계승권자의 지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는 그 당시 헌덕왕이 高齡이었다는 점, 수종은 부군이 됨과 동시에 궁궐인 월지궁에 입궁하였다는 점, 헌덕왕이 녹진의 방안을 수종에게 알리라고 하였던 것은 차기 왕위계승권자인 수종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점³⁹⁾ 등으로 볼 때, 수종을 차기 왕위계승권자로 삼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⁴⁰⁾ 그러므로, 후일 흥덕왕으로 즉위한 수종이 부군으로 된 시점 전후의 ‘특수한 사정’이란 헌덕왕이 고령이면서, 평탄치 않았던 시대적 상황, 그리고 김헌창과 그 불만

38) 『삼국사기』 권45, 열전5, 녹진전, “時忠恭角干爲上大等, 坐政事堂, 注擬内外官, 退公感疾. … 角干於是謝遣醫官, 命駕朝王室. 王曰, 謂卿尅日服藥, 何以來朝, 答曰, 臣聞祿真之言, 同於藥石, 豈止飲龍齒湯而已. 哉因爲王一一陳之, 王曰, 寡人爲君, 卿爲相, 而有人直言如此, 何喜如焉, 不可使儲君不知, 宜往月池宮. 儲君聞之, 入賀曰, 嘗聞君明, 則臣直, 此亦國家之美事也.”

39) 손흥호, 앞의 논문, 2021, 91쪽. 이명식은 충공이 부군을 찾아가는 것이 부군의 정치적 역량을 말한다고 하였다(李明植, 「新羅 下代 金周元系의 政治의 立場」, 『大丘史學』 26, 대구사학회, 1984, 14쪽).

40) 주보돈은 상대등에 재임한 수종이 부군으로 취임한 점, 월지궁에 들어가 살았던 점 등으로 부군은 차기 왕위계승권자의 지위였으며, 부군은 비슷한 시기 발해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부왕처럼 차기 왕위계승에 관한 권한을 가지면서 현실의 실제 권한도 보유한 직책이라 하였다(朱甫暎, 앞의 논문, 2008, 241쪽).

세력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등이라 하겠다.⁴¹⁾

다음으로, ‘새로운 용어’인 副君이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까?⁴²⁾ 그 이유로, 첫째는 수종이 上大等を 역임한 점이다. 상대등의 위상은 수상일 뿐만 아니라, 부왕에 버금가는 존재라고 하였다.⁴³⁾ 둘째는 헌덕왕이 자신의 事例인 副王을 遵用하였다는 점이다.⁴⁴⁾ 여기서 부왕에 대해, 唐에서 新羅로 보내온 다음의 勅書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E) 신라왕 金重熙에게 勅하다. 金獻章과 승려 冲虚 등이 이르러서 … 지금 金獻章 등을 돌려보내며 작은 信物을 別錄에 갖추어 보내 ①경의 母와 ②妃, 아울러 ③ 副王, ④宰相 이하에게 각각 물품을 하사하니 도착하면 마땅히 수령하라.⁴⁵⁾

위의 내용은 헌덕왕 2년(810) 10월 왕자 김헌장을 사신으로 보내 조공하면서 금·은·불상과 불경 등을 바치고, 5년 전에 薨去한 당 順宗에 대한 명복을 빈 것에 대해, 당에서 답장으로 보내온 칙서로,⁴⁶⁾ ③副王은 ①王母와 ②王妃 뒤에, ④宰相 앞에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부왕은 당시 헌덕왕이며, 부왕의 칭호는 신라에서 당에 알려준 정보라고 하였다.⁴⁷⁾ 헌덕왕 자신이 國王임에도 부왕이라 호칭한 이유는 자신의 卽位 과정이 정상적이었고, 애장왕 사후 왕위계승권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공식화시키고자 한 목적으로, 이러한 ‘부왕’의 지위를 새로이 만들어, 당에는 그 자신이 부왕임을 알린 것이라 하겠다.⁴⁸⁾

41) 수종의 왕위계승이 恒久的인 아닌 限時的인 필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부군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 하였다(朱甫墩, 앞의 논문, 2008, 241쪽). 아마도 차기 왕위 계승의 과정은 문제가 없음을 알리고자 하였던 의도인 것이라 볼 수 있다.

42) 그 시기에는 이미 太子制度가 운영되고 있었다.

43) 이영호,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014, 187쪽.

44) 홍승우, 앞의 논문, 2018a에서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45) 『文苑英華』 권471, 叢書4 新羅書, “勅新羅王金重熙, 金獻章及僧冲虚等至, … 今遣金獻章等歸國, 竝少有信物, 具在別錄, 卿母及妃並副王宰相以下, 各有賜物, 至宜領之.”

46)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2년 10월조, “遣王子金憲章入唐, 獻金銀佛像及佛經等, 上言爲順宗祈福.”

47) 또한, 副王의 의미는 副君과는 사실상 동일한 용어라고 하였다(홍승우, 앞의 논문, 2018a, 73쪽).

즉, 칙서를 받는 시점에 헌덕왕이 이미 卽位한 상태였지만, 이를 당에 알리지 못하였던 것이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다음과 같이 헌덕왕에 대한 당의 책봉 시점이 헌덕왕 즉위년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삼국사기』의 오류라고 하였다.⁴⁹⁾

F) (헌덕왕 원년) 이찬 김창남 등을 당에 보내 喪을 알렸다. 당 憲宗이 직방원의랑 · 섭어사중승 최정을 사신으로 하고 質子인 김사신으로 보좌하게 하여, 符節을 가지고 가서 조문하고 제사하게 하였다. 왕을 개부의동삼사 · 검교태위 · 지절 · 대도독계림주제군사 · 계림주자사 · 겸지절충영해군사 ·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하고,⁵⁰⁾

헌덕왕이 즉위한 이후 시간이 흐른 후에야 당에 이러한 자신의 즉위 사실을 알렸던 이유로는 아래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헌덕왕이 즉위 초기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⁵¹⁾ 또한, 이는 前王(애장왕)의 弑害라는 방법을 통하여 즉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함이었고,⁵²⁾ 이러한 방식으로 즉위한 상황의 정당성을 당에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므로, 바로 卽位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책봉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이라 하였다.⁵³⁾

48) 홍승우, 앞의 논문, 2018a, 75쪽.

49)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 遣唐使研究』, 一潮閣, 1997, 75~77쪽. 이는 『삼국사기』 편자의 의도적 수정일 수 있지만(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417쪽), 이미 신라 당대에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이문기,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원문화사, 2015, 90~95쪽).

50)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원년 8월, “遣伊湊金昌南等入唐告哀, 憲宗遣職方貳外郎 · 攝御史中丞崔廷 以其質子金士信副之, 持節吊祭, 冊立王爲開府儀同三司 · 檢校大尉 · 持節 · 大都督雞林州諸軍事兼持節充寧海軍使 · 上柱國 · 新羅王.”

51) 이러한 기사들에서 헌덕왕이 즉위한 이후 혼란하였던 정국을 수습하고, 정치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최홍조, 「新羅 哀莊王代の 政治變動과 金彦昇」, 『韓國古代史研究』 34, 한국고대사학회, 2004, 366쪽).

52) 최홍조, 「신라 神行禪師碑의 건립과 그 정치적 배경」, 『木簡과文字』 11, 한국목간학회, 2013, 239쪽 ; 이문기, 앞의 책, 2015, 83쪽.

53) 홍승우, 앞의 논문, 2018a, 74쪽.

G-1) (헌덕왕 3년) 4월에 平議殿에서 정사를 보기 시작하였다.⁵⁴⁾

2) (헌덕왕 5년) 2월에 始祖廟를 찾아뵈었다.⁵⁵⁾

이 부왕의 지위는 발해에서도 확인된다. 발해에서 부왕은 왕의 장남으로, 왕위계승자인 태자의 지위였다.⁵⁶⁾ 헌덕왕이 이러한 발해의 사례를 고려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왕위의 계승에 관한 권한을 공식화하기 위한 지위로서 발해의 사례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부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던 것이었다.⁵⁷⁾ 여기에 헌덕왕 자신도 애장왕 재위 기간에 상대등을 역임하였던 점도⁵⁸⁾ 고려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⁹⁾ 그러므로 상대등을 역임한 수중에게 헌덕왕의 사례인 부왕이 遵用되었던 것으로,⁶⁰⁾ 아마도 그간 사용되었던 태자라는 용어 대신 그 異稱인 副君이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⁶¹⁾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와 같다.

54)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3년, “夏四月, 始御平議殿聽政.”

55)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5년, “二月, 謁始祖廟.”

56) 『新唐書』 권219, 列傳144, 北狄 渤海傳, “俗謂王曰可毒夫, 曰聖王, 曰基下, 其命爲教, 王之父曰老王, 母太妃, 妻貴妃, 長子曰副王, 諸子曰王子.”

이 외의 부군 혹은 부왕의 용례는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① 『삼국유사』 권3 塔上4 명주 오대산보길도태자전기, “淨神太子弟副君在新羅爭位誅滅.”

② 『冊府元龜』 권962, 外臣部7, 官號渤海國, “渤海國, 唐中宗時, 封大祚榮, 爲渤海郡王. 其俗呼其王, 爲可毒夫, 對面爲聖王, 牋表呼基下父母, 老王母曰太妃, 妻曰貴妃, 長子曰副王, 諸子曰王子 世以大氏爲酋長.”

57) 홍승우, 앞의 논문, 2018a, 75쪽.

58)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원년, “二年爲御龍省私臣, 未幾爲上大等, 至是即位.” 각주 44 참조.

59) 이문기는 부군이 헌덕왕대 부왕을 모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이문기, 「〈與新羅王金重熙書〉로 본 헌덕왕의 즉위 사정」, 『(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문총2)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2014, 434쪽, 각주 6), 이후에 부군과 부왕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이문기, 앞의 책, 2015, 87쪽). 부왕은 애장왕의 어린 왕자일 가능성이 있거나(손홍호, 앞의 논문, 2016, 310쪽 각주 24), 唐이 攝政한 헌덕왕에게 부여하였던 것이라 하였다(신석열, 앞의 논문, 2016, 176쪽).

60) 조범환은 副君에 대해, 그 용어 자체로만 해석하여, 헌덕왕의 변고에 대해 태자를 보좌하고, 왕권을 책임질 위치로 임명한 듯하다고 하였다(조범환, 앞의 논문, 2010, 41쪽).

<표 1> 副王과 副君의 비교

구 분	신라		발해
	副王	副君	副王
대상 인물 (卽位)	김연승 (헌덕왕)	김수종 (흥덕왕)	왕의 長子 (국왕)
直前 직위	상대등	상대등	-
용어 의미	왕위계승권자	왕위계승권자	왕위계승권자
관련 사건	애장왕의 시해	김헌창의 반란 ⁶²⁾	-

여기서 상대등을 역임한 수종이 차기 왕위계승권자의 지위를 의미하는 副君으로, 또 다른 동생 충공이 인사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관직인 上大等에 임명된 것에 대해, 김헌창의 난과 연관하여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자. 이를 통해, 헌덕왕과 그 형제들은 더욱 結束할 수 있었을 것이며,⁶³⁾ 이러한 基盤 위에서 앞으로 차기 왕위의 계승과 국정의 운영은 이들 三兄弟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반면에, 김헌창과 그 불만 세력은 이러한 국정의 운영 방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定着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난을 일으킨 原因으로 작용하게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⁴⁾

61) 또한, 君과 王은 서로 통용되는 글자인 만큼 이 두 글자의 관계는 서로 무관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고 하였다(홍승우, 앞의 논문, 2018a, 73쪽, 각주 54). 아마도 副王과 副君은 儲貳와 儲君의 用例처럼 사용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62) 김헌창의 난이 일어난 원인 중에는 헌덕왕 三兄弟 중심의 집권화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각주 25 참조), 이처럼 수종을 부군으로 삼는 등의 정책은 김헌창과 그 불만 세력들이 난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名分’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63) 이기동은 흥덕왕 수종의 즉위가 평화리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다(李基東, 앞의 논문, 1991 ;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162쪽). 閔泳珪는 『흥덕왕릉비판』에서 관독된 부분 중에서 “巳之歲 冊”와 관련하여, 뒤의 冊이 冊封과 관계된 것이며 이 부분을 前王인 헌덕왕 17년 乙巳年에 흥덕왕 수종이 왕위계승자로서의 위치를 굳힌 것으로 추정하였다(閔泳珪, 『新羅 興德王陵碑斷石記』, 歷史學報』 17·18, 역사학회, 1962, 627쪽).

64) 주보돈은 김헌창이 거사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하였고, 반중양적(반신라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무르익자, 이에 편승하려고 하였던 것이라 보았다(朱甫燾, 앞의 논문, 2008, 260쪽).

그렇다면, 이는 김헌창의 난이 신속히 진압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로 歸結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수종을 副君으로 삼고, 또 다른 동생 충공을 上大等에 임명한 것은 김헌창의 난을 대비한 사전 대비책의 의미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중양정부’의 의미 속에는 헌덕왕과 그 형제들이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김헌창의 난을 진압하는데 이들 三兄弟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⁶⁵⁾

III. 헌덕왕의 次妃와 貞嬌夫人

副君은 헌덕왕이 自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副王’과 동일한 것이며, 공식적인 차기 왕위계승권자를 지칭한 것으로, 太子의 지위에 해당함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수종이 부군으로 임명된 지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헌덕왕 14년(822) 3월에 각간 충공의 자녀 정교를 太子妃로 삼았다는 기사가 보인다.⁶⁶⁾ 同 기사로 인해, 부군으로 임명된 수종이 정교 부인과 혼인한 관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는바, 다음의 기사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H-1) (흥덕왕 원년) 겨울 12월에 왕비 章和夫人이 죽으니, 定穆王后로 追封하였다. 왕이 왕비를 생각하며 잊지 못하고, 슬퍼하며 즐거워함이 없어서, 여러

65) 흥덕왕의 즉위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井上秀雄, 「『三國史記』にあらわれた新羅の中央行政官制について」, 『朝鮮學報』 51, 1969;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246쪽; 朱甫噉, 앞의 논문, 2008, 243쪽; 이현태, 앞의 논문, 2020, 63쪽. 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흥덕왕의 즉위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과 태자의 책봉을 기술한 史料는 찾을 수 없다. 둘째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碑」의 “興德大王께서 왕위를 계승하시고 宣康太子께서 監撫를 하시어, 사악한 것을 제거하여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며 …”에서 선강태자는 충공으로 보고 있는바, 이로써 헌덕왕 三兄弟를 중심으로 운영된 국정의 흐름이 적어도 흥덕왕의 즉위 이후 충공의 생존 시까지 여전히 이어졌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66)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4년 3월, “聘角干忠恭之女貞嬌爲太子妃.”

신하들이 表文을 올려 다시 왕비를 맞아들일 것을 청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작이 없는 한 마리 새도 작을 잃고 슬퍼하는데, 하물며 좋은 배필을 잃은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어찌 無情하게 바로 다시 아내를 얻겠는가?”라고 하면서, 끝내 듣지 않았다. 또한 시녀를 가까이 두지 않고, 좌우에 두고, 부리는 사람은 오직 환관뿐이었다. 장화부인은 성이 김씨로 昭聖王의 딸이다.⁶⁷⁾

- 2) 제42대 흥덕대왕이 寶曆 2년 병오년에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사람이 唐에 사신으로 갔다가 앵무새 한 쌍을 가지고 왔는데, 오래지 않아 암컷이 죽었다. 혼자 남겨진 수컷이 슬피 울기를 멈추지 않자, 왕은 사람을 시켜 앞에 거울을 걸게 하였다. 새가 거울 속의 그림자를 보고 짝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여 그 거울을 쪼다가 그림자임을 알고서 슬피 울다가 죽었다. 왕이 노래를 지었다고 하나, 알 수 없다.⁶⁸⁾

부군 수증은 즉위한 후에 그 妃 章和夫人이 卒하니 定穆王后로 追封하였고, 그 비를 잊지 못하며 슬퍼하여, 신하들이 다시 妃를 받아들일 것을 청하여도 끝내 듣지 않으며, 시녀도 가까이 두지 않고, 좌우 使令은 오직 환관만을 두었다(H-1). 앵무새 한 쌍 중에서 암컷이 죽게 되자 외로운 수컷도 슬피 울다가 죽었고, 이를 흥덕왕이 노래로 지었다는 기사도 보인다(H-2). 여기에 사후에 왕후 책봉이 이루어진 점에 주목해 보자(H-1). 이는 장화부인의 죽임이 임박하여 왕후로 책봉할 틈이 없어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다.⁶⁹⁾

또한, 흥덕왕이 정교부인과도 혼인하였다고 한다면, 그녀도 함께 왕후로 추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⁷⁰⁾ 하지만, 흥덕왕대 추봉된

67) 『삼국사기』 권10, 흥덕왕 원년, “冬十二月, 妃章和夫人卒, 追封爲定穆王后. 王思不能忘, 悵然不樂. 羣臣表請再納妃, 王曰, 隻鳥有喪匹之悲, 況失良匹, 何忍無情, 遽再娶乎. 遂不從, 亦不親近女侍, 左右使令, 唯宦豎而已. 章和姓金氏, 昭聖王之女也.”

68) 『삼국유사』 권2, 기이2, 흥덕왕 앵무, “第四十二興德大王, 寶曆二年丙午即位. 未幾有人奉使於唐 將鸚鵡一雙而至, 不久雌死, 而孤雄哀鳴不已. 王使人掛鏡於前, 鳥見鏡中影擬其得偶乃啁其鏡, 而知其影乃哀鳴而死. 王作歌云, 未詳.”

69) 李泳鎬, 「통일신라시대의 王과 王妃」, 『新羅史學報』 22, 신라사학회, 2011, 36쪽.

70) 후술하는 바와 같이 충공은 그 정치적 위상이 높았으며, 국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追封’은 유교 의례와 관련된 것이며, 이는 정치적 위상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왕후는 장화부인만 보이고 있고, 장화부인은 소성왕의 자녀로 확인되고 있으며, 장화부인 이외에 흥덕왕이 또 다른 부인과 혼인하였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흥덕왕에게 複數의 부인이 존재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⁷¹⁾ 이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녹진전의 “國王無嗣子”라는 기록에 주목하여 同 기사를 신뢰하지 않거나,⁷²⁾ 太子妃를 헌덕왕의 再娶로 보고 있다.⁷³⁾ 둘째는 부군인 수종의 비를 태자비로 표현한 것으로, 장화부인과 정교부인은 아마 元妃와 次妃의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⁷⁴⁾ 셋째는 태자비 정교는 김균정의 再娶이자 신무왕의 이복동생 헌안왕의 생모였다는 것으로, 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린 왕의 모친에 대한 기록은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후대의 분식 가능성과 함께, 신무왕의 모친에 대한 기록도 같은 의미에서 이해된다고 하였다.⁷⁵⁾ 넷째는 정교와 혼인한 태자는 수종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군 수종과 다른 별도로 존재한 태자가 정교부인과 혼인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⁷⁶⁾

그렇다면, 과연 정교부인의 혼인 상대자는 누구일까? 여기서 헌덕왕의 왕비가 唐으로부터 받은 冊封 사례를 중국의 史料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국왕에 대한 책봉과는 다르게, 唐 황제의 신라 왕비에 대한 책봉은 드물게 나타났으며, 이는 신라에서 제공한 자료로 의거하고 있기⁷⁷⁾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덕왕의 妃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71) 이현태, 앞의 논문, 2020, 62~63쪽.

72) 李基東,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역사학회, 1980, 15~16쪽; 『新羅骨品制 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158~159쪽.

73) 文暉鉉, 「神武王의 登極과 金昕」, 『趙恒來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92, 70~71쪽.

74) 손흥호, 앞의 논문, 2021, 80쪽.

75) 홍승우, 앞의 논문, 2018b, 181~192쪽. 이에 대하여, 첫째는 균정이 태자에 책봉되었어야 하고, 둘째는 헌안왕의 어머니 照明夫人과 충공의 딸인 정교가 동일인이라는 등의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2가지의 조건이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이현태, 앞의 논문, 2020, 64~65쪽).

76) 각주 13와 각주 14 참조.

- I-1) (元和 七年, 812년) 彦昇의 처 貞氏를 妃로 책립하였다.⁷⁸⁾
- 2) (元和 七年, 812년) 彦昇의 처 貞氏를 妃로 책립하였다.⁷⁹⁾
- 3) (元和 七年, 812년) 彦昇의 처 朴氏에게 책명을 내려 妃로 삼았다.⁸⁰⁾
- 4) (元和 七年, 812년) 처 貞氏를 책립하여 妃로 삼았다.⁸¹⁾

이처럼 중국의 사료에는 貞氏, 朴氏, 眞(眞)氏 등으로 서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물론 중국의 책봉 기사들에 실려 있는 王母나 王妃의 姓氏에는 오류가 적지 않고,⁸²⁾ 비슷한 시기 唐에서 王母나 王妃의 姓을 그 父의 姓과는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대부분 왕비의 아버지 이름의 첫 글자를 姓으로 삼았거나, 朴氏로 기재하였고, 부인 이름의 첫 글자를 姓氏로 적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⁸³⁾ 하지만 貞氏, 朴氏, 眞(眞)氏 등으로 기록된 것이⁸⁴⁾ 신라에서 唐으로 제공된 자료였다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이를 통해 헌덕왕에게 複數의 王妃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판단된다.

한편, 『三國遺事』 王曆篇에는 중국 역대왕조의 國名·帝名·年號와 그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앞에 두고, 그 아래에 신라·고구려·백제·

77) 李泳鎬, 앞의 논문, 2011, 23~47쪽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78) 『舊唐書』 권199 上, 列傳149 上, 東夷 新羅傳,

79) 『新唐書』 권220, 列傳145, 東夷 新羅傳.

80) 『唐會要』 권95, 新羅.

81) 『冊府元龜』 권965, 外臣部, 冊封3.

82) 권덕영, 「신라 하대 朴氏勢力的 동향과 '朴氏 王家」, 『韓國古代史研究』 49, 한국고대사학회, 2008, 203~205쪽 ; 李泳鎬, 앞의 논문, 2011, 39~46쪽.

83) 또한, 貞과 眞(眞)은 그 자형이 유사하므로, 오사 혹은 오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홍승우, 앞의 논문, 2018b, 177쪽).

84) 기존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의 사료에서 貴勝夫人의 아버지는 金禮英 角干이므로 金氏이거나, 아버지 이름의 첫 글자인 禮氏, 혹은 朴氏로 기록되어야 한다. 더하여, 신라 국왕의 王母나 王妃가 감씨임에도 불구하고 박씨로 나타남은 血族結婚의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며, 이는 신라에서 제공한 자료로 의거한 것이라 하였다(이병도, 『삼국사기(상)』(개정판), 을유문화사, 2016, 266쪽). 그렇다면, 중국측 기록에서 헌덕왕의 비가 金氏가 아닌 貞氏, 朴氏, 眞(眞)氏 등으로 나타나는 이유도 이와 관련되었을 것이다.

가야의 ‘王室系譜’, 史實 등을 고려 태조가 통일을 완성하는 936년에 이르기까지 해당 년대를 기록한 年表인바, 이러한 王曆篇에서 정교부인의父인 충공이 기록되어 있다. 『三國遺事』 王曆篇에서 충공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J) 第四十一憲德王 金氏 名彥升. 昭聖之母弟. ①妃貴勝娘, 諡皇娥王后, ②忠恭角干之女, 己丑立, 理十九年. 陵在泉林村北.⁸⁵⁾

위의 기사에서 헌덕왕의 비는 ①‘貴勝’으로, 귀승부인의 父는 예영 角干임에도,⁸⁶⁾ ②“忠恭角干之女”로, 즉, 충공이 왕비의 父이자 헌덕왕의 丈人으로 기록된 것이다. 왜 이처럼 기록되었을까? 위의 기사는 단순한 오류로만 보아야 할까?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덕왕에게 귀승부인 이외의 또 다른 왕비, 즉 複數의 王妃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오류라고 보기보다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 이에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K) (헌덕왕 14년) 삼월 십팔일, …… 김현창이 겨우 몸을 피하여 성안에 들어가 수비를 견고하게 하자, 여러 군대들이 성을 포위하여 공격한 지 10일 만에 성이 막 함락되려고 하였다. 김현창이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從者가 목을 베어 머리와 몸을 각각 다른 곳에 묻었다. 성이 함락되자 오래된 古塚에 있던 그의 시신을 찾아내 다시 처단하고, ①宗族과 黨與 모두 239명을 죽였으며, 그 백성들은 풀어 주었다. ②후에 전투에서의 功에 따라 차등 있게 官작과 상을 주었는데, 아찬 祿眞에게 대아찬 관등을 주었으나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③敵良州의 屈自郡은 반란군에 가까운 곳이었으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를 7년간 면제시켜 주었다. 이보다 앞서 薺州 태수의 廳事 남쪽 연못 속에서 기이하게 생긴 새가 나왔는데, 몸길이가 5척에 색은 검었고 머리가 5살 정도의 어린아이만 했으며, 부리 길이는 1척 5촌에 눈은 사람 같았고, 모이주머니는 5升 정도 되는 그릇만하였다. 3일 만에 죽었으니, 현창이 패망할

85) 『삼국유사』 권1, 왕력편. 이와 관련하여 문경현은 헌덕왕이 정교와 再娶하게 되어 기록된 것이라 하였다(文暉鉉, 앞의 논문, 1992, 70~71쪽).

86)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4년, “妃貴勝夫人, 禮英角干女也.”

징조였다. ④角干 충공의 딸 貞嬌를 맞아들여 태자비로 삼았다.⁸⁷⁾

위의 기사에서, ‘태자비 정교의 혼인’은 김헌창의 난을 진압한 후에 그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功에 따라 관작과 상을 차등 있게 준 내용 뒤에, 바로 이어서 수록이 되었다. 아마도 이는 김헌창의 난과 연관되어, 그와 같은 순서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의 기사에 보이는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더 검토해 보자.

첫째, 왕권의 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것이다. 김헌창의 난은 대내외적인 정세를 어느 정도 읽고 있던 중앙귀족이 지방의 분립적 동향을 활용하여 일으킨 반란으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지닌 중앙의 귀족과 지방의 세력이 合作하여 일으킨 난으로,⁸⁸⁾ 그 난은 진압된 후에 宗族과 黨與 239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등의 강경책이 행하여졌다(K-①). 이는 난의 재발을 방지하고, 현덕왕 형제 중심의 지배체제를 굳건히 구축하고자 하였던 조치였다.⁸⁹⁾

둘째, 이전의 양상과는 사뭇 다른 논공행상과 관련된 것이다. 비록 사양하며 받지 않았으나, 아찬 녹진에게는 대아찬 관등을 주고자 하였고(K-②),⁹⁰⁾ 삼랑주 굴자군은⁹¹⁾ 반란군과 가까운 곳이었음에도, 그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를 7년간이나 면제시켜 주었으며(K-③), “그 백성들은 풀어 주었다(縱其民)”라는 점은 지방 세력에 있어서

87) 『삼국사기』 권10, 현덕왕 14년, “憲昌僅以身免, 入城固守. 諸軍圍攻浹旬, 城將陷, 憲昌知不免自死, 從者斷首與身各藏. 及城陷, 得其身於古塚誅之, 戮宗族・黨與凡二百三十九人. 縱其民, 後論功爵賞有差, 阿漭祿眞授位大阿漭, 辭不受. 以歆良州屈自郡, 近賊不汙於亂, 復七年. 先是, 薺州太守廳事南池中, 有異鳥, 身長五尺, 色黑, 頭如五歲許兒, 喙長一尺五寸, 目如人, 喙如受五升許器, 三日而死, 憲昌敗亡兆也. 聘角干忠恭之女貞嬌爲太子妃.”

88) 朱甫墩, 앞의 논문, 2008, 265~266쪽.

89) 朱甫墩, 앞의 논문, 2008, 268쪽.

90) 주보돈은 중앙귀족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골품제 운용상의 변화를 일부 시도로 보고, 6두품인 녹진에게 대아찬을 지급하려 한 것은 골품제의 탄력적인 운용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하였다(朱甫墩, 앞의 논문, 2008, 268~269쪽).

91) 주보돈은 삼랑주의 여러 郡 가운데 오직 굴자군만이 특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朱甫墩, 앞의 논문, 2008, 258쪽)

처음부터 포용하려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이들을 강경하게 처리하였을 경우는 오히려 전면적으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⁹²⁾

더하여, 김헌창의 난이 진압된 후에도, 신라의 상황은 여전히 그 불안한 기운이 內在하고 있음을 다음의 기사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L-1 · 2 · 3 · 4 · 5). 또한 헌덕왕 17년(822) 김헌창의 아들 범문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킨 일도 발생하였다.⁹³⁾

L-1) (헌덕왕 14년) 溟江 산골짜기 사이에 쓰러진 나무에서 싹이 났는데, 하룻밤 이 지나자 높이 13척, 둘레 4척 7촌이 되었다.⁹⁴⁾

2) (헌덕왕 14년) 여름 4월 13일에 달빛이 핏빛과 같았다.⁹⁵⁾

3) (헌덕왕 14년) 가을 7월 12일에 해에 검은 햇무리가 생겼는데, 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모양이었다.⁹⁶⁾

4) (헌덕왕 15년) 봄 정월 5일에 西原京에서 벌레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9일에 흰색, 검은색, 붉은색 세 종류의 벌레가 눈이 와도 상관없이 다니다가 해를 보자 죽었다.⁹⁷⁾

5) (헌덕왕 15년) 여름 4월 12일에 流星이 天市에서 생겨나 帝座를 침범하였고, 천시 동북쪽과 織女 王良을 통과하여 閣道에 이르자 셋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을 치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면서 소멸하였다.⁹⁸⁾

여기서 앞서 언급한 『삼국유사』 왕력편에서 왕비의 아버지 헌덕왕의 丈人으로 기록된 정교부인의 父인 충공이란 인물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헌강왕 8년(882) 최치원이 찬한 『華嚴結社會願文』에서 이를 간접

92) 朱甫墩, 앞의 논문, 2008, 269쪽.

93)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7년, “春正月, 憲昌子梵文與高達山賊壽神等百餘人, 同謀叛, 欲立都於平壤, 攻北漢山州, 都督聰明率兵, 捕殺之.”

94)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4년, “溟江山谷間, 顛木生蘂, 一夜高十三尺, 圍四尺七寸.”

95)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4년, “夏四月十三日, 月色如血.”

96)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4년, “秋七月十二日, 日有黑暈, 指南北.”

97)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5년, “春正月五日, 西原京有蟲從天而墮. 九日, 有白黑赤三種蟲, 冒雪能行, 見陽而止.”

98)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5년, “夏四月十二日, 流星起天, 犯帝座, 過天市東北垣織女·王良, 至閣道分爲三, 聲如擊鼓而滅.”

적으로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태화 연간(827~835) 당에서 밀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균량이 현강왕의 화엄결사에 약 50년 전인 김충공의 부인인 선의왕후를 받들어서 화엄결사를 하였던 古事를 인용하여 寫經 등의 사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이로 볼때 김충공의 위상은 그 당시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겠다.⁹⁹⁾ 또한,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碑」에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자.

M) 興德大王께서 왕위를 계승하시고 宣康太子께서 監撫를 하시어, 사악한 것을 제거하여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며, 선을 즐겨하여 왕가의 생활을 기쁘게 하였다.¹⁰⁰⁾

이 비문에서 宣康太子는 수종의 동생이자, 수종이 부군이 되자 상대등으로 임명된 정교부인의 父인 충공이다. 이는 흥덕왕 재위 기간의 어느 시점에서 충공이 태자로서, 왕위계승 제1의 후보자가 되어 국정을 監撫 하였던 것이라 하겠다.¹⁰¹⁾ 충공은 애장왕대부터 흥덕왕대까지 형들과 함께 정치를 주도하였던 실세이면서, 유력 권력자들의 장인이었고, 그 자신의 딸들을 유력한 진골 귀족들과 혼인시키면서 정치세력을 공고히 하였던 인물이었다.¹⁰²⁾

이처럼 왕권의 안정을 위한 대책과 이전과는 사뭇 다른 논공행상 등이 시행되었고, 김헌창의 난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신라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련 대책도 필요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정교의 父인 충공은 그 정치적 위상이 드높았으며, 그는 유력한 진골 귀족들과 혼인을 통해 긴밀한 관계도 유지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과 함께

99) 손흥호, 앞의 논문, 2021, 94~95쪽.

100) 韓國古代社會研究所(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I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180~181쪽, “及興德大王纂戎, 宣康太子監撫, 去邪翳國, 樂善肥家.”

101) 손흥호, 앞의 논문, 2016, 326쪽 ; 앞의 논문, 2021, 94쪽. 김창겸은 충공이 태자가 된 시기를 흥덕왕이 즉위한 직후라고 하겠다(김창겸,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경인문화사, 2003, 111쪽).

102) 손흥호, 앞의 논문, 2016, 323~325쪽 ; 앞의 논문, 2021, 89~97쪽.

헌덕왕에게 複數의 王妃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헌덕왕이 동생 충공의 자녀인 정교부인을 왕비로 맞이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는 헌덕왕과 그 형제들 중심으로 운영된 국정 of 흐름을 안정적으로 持續시킬 목적으로, 문화관문을 지켰던 충공의 功에¹⁰³⁾ 대한 논공행상의 의미로서, 헌덕왕이 정교부인과 혼인하였던 것이라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헌덕왕은 예영의 딸인 귀승을 元妃로, 충공의 딸인 정교를 次妃로 맞이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삼국유사』왕력편에서 妃는 元妃인 귀승을, 妃의 父(王의 丈人)는 次妃의 父인 忠恭을 기록하였던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므로, 반란자의 처벌(K-①) → 논공행상의 시행(K-②・③) → 정교부인의 혼인(K-④) 등의 기사들은 그 당시 왕권 안정을 위한 대책과 논공행상, 그리고 헌덕왕의 혼인 등이 행하여진 일련의 흐름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헌덕왕과 왕비의 관계

구분	元妃	次妃	중국 측 기록
혼인의 대상	귀승부인	정교부인	貞氏, 朴氏, 眞氏
왕비의 父(왕의 丈人)	예영 각간	충공 각간	-
사료상 근거	『삼국사기』 등.	『삼국유사』	『구당서』 등.

다음으로 제42대 흥덕왕에 이어서 즉위한 제43대 희강왕의 妃를 ‘葛文王 충공’의 딸로 기록된 것에서(N), 헌덕왕이 정교부인과 혼인한 관계였음을 엿볼 수 있다. ‘葛文王 충공’의 표현은 흥덕왕에 의하여 충공이 갈문왕으로 追封된 것이며, 신라 중대 이후 200여 년 만의 갈문왕으로의 추봉은 당시 흥덕왕의 동생이자 차기 왕위계승 후보자였던 충공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¹⁰⁴⁾

103)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4년, “角干忠恭・迎漁允膺守蚊火關門.”

N) 僖康王이 즉위하였다. 왕의 이름은 悌隆(悌顯이라고도 한다)으로, 元聖大王的 손자 伊瀟 憲貞(草奴라고도 한다)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包道夫人이고, 왕비 文穆夫人은 葛文王 忠恭의 딸이다.¹⁰⁵⁾

葛文王과 관련하여, 일찍이 이기백은 눌지마립간 이후 김씨의 왕위 부자상속제가 확립되면서 왕위계승권자의 지위에서 밀려난 王弟가 독립된 家系의 始祖 혹은 長으로서 葛文王으로 책봉되는 일이 지배적인 현상으로 되었고, 이에 준하는 王妃의 父, 王母의 父, 특수한 경우엔 女王匹의 씨족 내지는 가계의 長이 갈문왕으로 책봉되었다고 하였다.¹⁰⁶⁾

여기서 200여 년이라는 간격이 가지는 시간의 무계감과 최고의 예우를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헌덕왕과 흥덕왕 그리고 충공은 모두 김씨 왕족의 형제들이자, 나아가 충공은 흥덕왕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憲德王의 丈人(王妃의 父)’이었기 때문에, 갈문왕으로 추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⁷⁾ 그리고 중대말 혜공왕대부터 ‘一夫二妻制’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¹⁰⁸⁾ 헌덕왕대 태자를 책봉하였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에서도, 헌덕왕에게 元妃와 次妃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¹⁰⁹⁾

한편으로, 헌덕왕에게는 「閔哀王石塔 舍利函記」에 보이는 心地(心智)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嫡子인지 庶子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¹¹⁰⁾ 志學之年에 출가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¹¹¹⁾ 심지는

104) 손흥호, 앞의 논문, 2021, 96쪽.

105) 『삼국사기』 권10, 화강왕 즉위년, “僖康王立. 諱悌隆—云悌顯, 元聖大王孫伊瀟憲貞—云草奴之子也. 母包道夫人, 妃文穆夫人, 葛文王忠恭之女.”

106) 李基白, 「新羅時代の 葛文王」, 앞의 책,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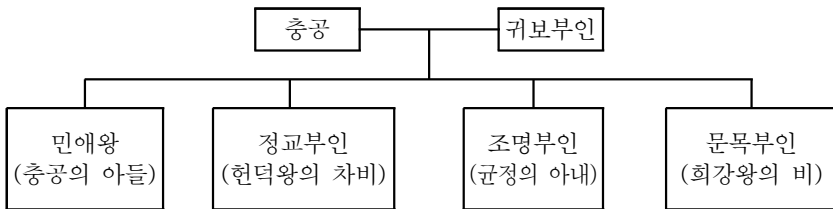
107) 여기서도 『삼국유사』 왕력편에서 충공이 왕비의 父이자 헌덕왕의 ‘丈人’으로 기록된 이유를 엿볼 수 있다.

108) 李泳鎬, 앞의 논문, 2011, 48쪽.

109) 본 연구는 문경현이 제시한 견해인 ‘헌덕왕의 再娶’와 그 근거를 따르고 있다. 다만, “再娶”의 의미에는 아내를 여인 뒤에 결혼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바, 헌덕왕이 死別한 뒤에 혼인하였다고 여길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元妃와 次妃의 관계로 상정하였다.

110) 李泳鎬, 앞의 논문, 2011, 51쪽.

왕위계승권자인 태자는 아닐 것이라 하였다.¹¹²⁾ 또한, 출가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거나 신분상의 문제 등으로 아들이어도 태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¹¹³⁾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심지가 태자였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충공의 자녀와 그 혼인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¹¹⁴⁾



<그림> 충공의 자녀와 혼인 관계¹¹⁵⁾

111) 『삼국유사』 권4, 의해5, 심지계조, “志學之年，落采從師，拳勲于道.”

112) 손흥호, 앞의 논문, 2016, 323~325쪽 ; 앞의 논문, 2021, 89~97쪽.

113) 李泳鎬, 앞의 논문, 2011, 51쪽. 심지는 골품제에 의한 신분상 하자가 있다고 추정하였다(김창겸, 「신라 승려心地 연구 - 『삼국유사』 「心地繼祖」와 관련하여-,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217쪽).

114) 여기서 신무왕 김우징과 장보고의 사례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김우징은 후일 문성왕으로 즉위하는 아들인 경응이 있었음에도, 그는 신무왕으로 즉위하기 以前 장보고에게 민애왕을 제거해 준다면 왕위를 차지한 후에 장보고의 딸을 자신의 비(왕비)로 삼겠다고 하였다(『삼국유사』 권2, 기이, 신무대왕 염장공과 “第四十五神武大王潛邸時，謂俠士弓巴曰，我有不同天之讎。汝能爲我除之，獲居大位則娶爾女爲妃.”).

② 김우징이 장보고의 군사를 이용할 목적으로 혼인의 약속을 한 것처럼, 헌덕왕은 동생 충공의 정치적 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김현창의 반란을 진압할 목적으로 충공의 자녀인 정교를 왕비로 맞이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충공은 국왕의 장인이 되면, 그 정치적 위상이 한층鞏固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③ 이에 난이 진압된 후에 헌덕왕이 정교부인과 혼인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

115) 金昌謙, 앞의 책, 2003, 88~89쪽, <그림 3> 신라 왕실세계도 ; 손흥호, 앞의 논문, 2021, 92쪽, <그림 4> 김충공의 가계도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지금까지 부군과 태자와의 관계, 정교부인의 혼인 상대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군은 헌덕왕이 自稱하였던 부왕과 동일한 것으로, 차기 왕위계승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충공의 딸 정교부인의 혼인 상대자는 헌덕왕이었으며, 이는 모두 김헌창의 난과 관련되었다고 하겠다. 즉, 김헌창의 난이 신속하게 진압하게 된 이유 중에는 수종을 부군으로 삼은 것도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난을 진압한 후에 이에 대한 논공행상과 왕권의 안정을 위한 사후 대응책으로 충공의 딸인 정교를 헌덕왕의 차비로 맞이한 것이라 볼 수 있다.¹¹⁶⁾

그러므로 정교의 혼인 기사는 동궁과 월지궁과의 관계에 있어 그다지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부군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태자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왕위계승권자인 부군으로¹¹⁷⁾ 임명된 수종은 동궁과 동일한 궁궐인 월지궁으로 入宮한 것이라 하겠다.¹¹⁸⁾

116) 더하여 김헌창이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종이 부군이 된 것과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그 간격이 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종을 부군으로 삼은 날인 헌덕왕 14년(822) 정월로부터 김헌창의 난이 일어난 헌덕왕 14년(822) 3월까지 2여 달 정도의 간격은 왕위의 계승을 이유로 난을 준비하기에는 짧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는 수종 이외에 충공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수종을 부군으로 삼는 것과 관계 없이 김헌창이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하겠다.

117) 여기서 월지에서 출토된 안압지 229호 목간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안압지 229호 목간에는 “奉 太子君”이라고 명확하게 墨書되어 있는바, ‘太子君’에서 ‘君’字는 태자를 보다 높이기 위한 용어이었거나, 아니면 태자와는 다른 칭호(지위)를 의미하고자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118) 동궁과 월지궁과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의 기록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南原 實相寺 秀澈和尚塔碑』에는 “讓王顧不慙遺哭諸門外以傳東宮官奉食郎王輅飛教慰問……”(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으로, 그 내용은 秀澈和尚이 입적한 후에, 진성여왕이 東宮官 봉식랑 왕모에게 교서를 전하여 위문하였다는 기록이다. 만약 동궁과 월지궁이 서로 구별되는 궁궐이었다고 한다면, 진성여왕은 月池宮 혹은 內省 소속 관원이 아닌 東宮官 봉식랑 왕모를 통해 왜 굳이 교서를 보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월지궁은 동궁과 구별되는 별도의 궁궐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동궁은 태자의 거소 공간을

IV. 맺음말

신라 동궁은 지속적인 발굴 성과와 함께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신라 동궁의 성격과 관련하여, 현재 동궁과 월지궁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東宮과 月池宮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 중요한 주제인 副君 秀宗과 太子와의 관계, 太子妃 貞嬌夫人의 혼인 기사 등을 살펴보았다.

부군의 성격은 헌덕왕이 자칭하였던 부왕과 동일한 것이며, 차기 왕위 계승권자인 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태자비 정교의 혼인 기사는 태자비가 아닌 헌덕왕의 차비로서, 맞이하였음을 밝혀 보았다. 이는 모두 김헌창의 난과 관련되었다고 하겠다. 즉, 수종을 부군으로 삼은 것이 김헌창의 난을 신속히 진압하게 된 이유로 귀결되었으며, 그 난에 대한 사후 대응책으로 충공의 딸 정교부인을 헌덕왕의 차비로 맞이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수종을 태자가 아닌, 차기 왕위계승권자의 의미인 부군으로 삼았던 것은 수종이 상대등을 역임하였으며, 헌덕왕의 사제인 副王을 遵用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경덕왕 4년(745)에서 애장왕 5년(804) 사이에 太子의 居所 공간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인 ‘國王의 동쪽 宮闕’로 변화된 동궁이자 월지궁에 부군 수종이 入宮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정교의 혼인은 그 당시 애장왕대부터 흥덕왕대까지 형들과 함께 정치를 주도하였던 실세이자 유력 권력자들의 장인으로서,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충공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대책이자, 김헌창의 난에서 문화관문을 지킨 공이 있는 충공에 대한 논공행상의 의미도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부군의 성격과 태자비 정교의 혼인 기사 등으로 인해, 동궁과 월지궁이 서로 구별되는 궁궐로 보는 기존의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부군의 성격과 정교의 혼인 문제에만 한정하여 검토하였으므

포함한 국왕의 ‘동쪽 궁궐’로 변화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로, 전체적으로 신라 동궁과 월지궁과의 관계를 조망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견해와는 다르게 김현창의 난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추후 신라 동궁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한 후에, 신라 동궁과 월지궁과의 관계에 관하여 다룰 예정임을 밝혀둔다.

※ 이 논문은 2024년 02월 18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2월 28일부터 03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3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文苑英華』, 『舊唐書』, 『新唐書』, 『冊府元龜』, 『唐會要』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東宮과 月池Ⅲ 발굴조사보고서』, 2019.
韓國古代社會研究所(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고경희, 『안압지』, 대원사, 1989.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一潮閣, 1997.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史, 2003.
김창겸, 『신라 하대 국왕과 정치사』, 온샘, 2018.
李基東, 『新羅骨品制 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李基東,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이문기,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15.
이병도, 『삼국사기(상·하)』(개정판), 을유문화사, 2016.
李宇泰, 『韓國金石文集成(7)』, 韓國國學振興院, 2014.
이영호,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014.
崔在錫, 『韓國古代社會史研究』, 一志社, 1987.

권덕영, 「신라 하대 朴氏勢력의 동향과 '朴氏 王家」, 『韓國古代史研究』 49, 한국고대사학회, 2008, 203~205쪽.
김목동, 「新羅 東宮의 성격과 그 변화」, 『大丘史學』 150, 대구사학회, 2023.
김병근, 「신라 헌덕왕대의 副君 秀宗의 정체성과 太子」, 『東國史學』 55, 동국사학회, 2013, 176~192쪽.
金昌謙, 「新羅時代 太子制度의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13, 한국상고사학회, 1993, 166~167쪽.
김창겸, 「신라 승려 心地 연구 - 『삼국유사』 「心地繼祖」와 관련하여-」,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217쪽.

- 閔泳珪, 「新羅 興德王陵碑斷石記」, 『歷史學報』 17·18, 역사학회, 1962, 627쪽.
- 文暻鉉, 「神武王의 登極과 金昕」, 『趙恒來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92, 70~71쪽.
- 손흥호, 「9세기 전반 신라의 정치동향과 충공의 역할」, 『韓國古代史研究』 83, 한국고대사학회, 2016, 309~313쪽.
- 손흥호, 「신라 하대 초기의 정치과정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21.
- 선석열, 「신라 헌덕왕대의 정치과정과 정교부인의 혼인 문제」, 『新羅文化』 4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6, 176쪽.
- 李基東, 「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역사학회, 1980, 15~16쪽.
- 李基東, 「新羅 興德王代의 政治와 社會」, 『國史館論叢』 21, 국사편찬위원회, 1991, 115~116쪽.
- 이문기, 「〈與新羅王金重熙書〉로 본 헌덕왕의 즉위 사정」, 『(노태돈 교수 정년기념 논총2)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2014, 434쪽.
- 李明植, 「新羅 下代 金周元系의 政治的 立場」, 『大丘史學』 26, 대구사학회, 1984, 14쪽.
- 이승현, 「新羅의 東宮制度」, 『韓國古代史研究』 55, 한국고대사학회, 2009, 232쪽.
- 李泳鎬, 「통일신라시대의 王과 王妃」, 『新羅史學報』 22, 신라사학회, 2011, 36~51쪽.
- 이현태, 「신라 臨海殿과 月池宮의 성격 재론」, 『사학연구』 140, 한국사학회, 2020, 63~65쪽.
- 이현태, 「경주 동궁과 월지」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와 쟁점」, 『先史와 古代』 72, 한국고대학회, 2023.
- 윤경진, 「신라 興德王代 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 -三韓一統意識 출현의 일 배경-」, 『史林』 52, 수선사학회, 2015, 113쪽.
- 윤선태, 「新羅 東宮의 位置와 ‘東宮官’機構」, 『新羅史學報』 46, 新羅史學會, 2019, 137쪽.
- 朱甫噉,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51, 한국고대사학회, 2008, 241~269쪽.
- 曹凡煥, 「新羅 下代 憲德王의 副君 설치와 그 정치적 의미」, 『震檀學報』 110, 진단학회, 2010, 34~41쪽.

- 최상기, 「신라의 東宮과 月城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동향 -동궁 관련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08, 한국고대사학회, 2022.
- 최홍조, 「新羅 哀莊王代의 政治變動과 金彦昇」, 『韓國古代史研究』 34, 한국고대사학회, 2004, 366쪽.
- 최홍조, 「신라 神行禪師碑의 건립과 그 정치적 배경」, 『木簡과文子』 11, 한국목간학회, 2013, 239쪽.
- 韓炳三, 「雁鴨池名稱에 關하여」, 『考古美術』 153, 1982, 40~41쪽.
- 홍승우, 「문헌으로 본 新羅의 東宮과 그 운영」, 『문헌으로 보는 신라의 왕경과 월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
- 홍승우, 「신라 副君과 月池宮」, 『東洋學』 7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8a, 72~75쪽.
- 홍승우, 「헌덕왕대 太子妃 貞嬌와 태자」, 『新羅文化』 5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8b, 174~178쪽.
- 黃善榮, 「新羅 下代 金憲昌 亂의 性格」, 『釜山史學』 35, 부산사학회, 1998, 18쪽.
- 木村誠, 「新羅の宰相制度」, 『人文學報』 118, 1977, 36쪽.
- 未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 井上秀雄, 「《三國史記》にあらわれた新羅の中央行政官制について」, 『朝鮮學報』 51, 1969.
- 井上秀雄,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 of the Silla Bugun and Jeonggyo

Kim, Mok-dong

Silla's Donggung Palace (東宮, Crown Prince's Palace or, literally, East Palace)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scholars over the years, aided by the continued archaeological achievements in the area. Controversy continues over the nature of Donggu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lace and Woljigung Palace(月池宮, Moon Pond Palace)). As such, this study discusses important topic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onggung and Woljigung,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ugun Sujong(副君 秀宗) and the crown prince, as well as the marriage of 太子妃(Crown Princess) Jeonggyo(貞嬌).

Bugun (副君, vice king) has the same meaning as buwang (副王), a title self-proclaimed by King Heondeok (憲德王). Both terms refer to the crown prince (太子, *taeja*), the first heir to the throne. Therefore, Jeonggyo married King Heondeok as his chabi (次妃, consort). These are related to the Rebellion of Kim Heon-chang. One of the reasons why the rebellion was quickly suppressed was that Sujong was appointed as *bugun*, and King Heongdeok married Lady Jeonggyo (Chunggong (忠恭)'s daughter) as his consort as a follow-up measure.

Sujong was appointed as *bugun* because he served as Sangdaedeung (上大等, the highest government official of Silla). For this reason, following the precedent of buwang, he created a new position, bugun, to officially declare that he is the heir to the throne. It seems to be

the reason why Bugun Sujong moved to Woljigung, which was a Donggung in a broader sense, which includes the crown prince's residence as well as a palace east of the king. King Heondeok married Jeonggyo as his consort because she was the child of Chunggong, who led Silla's politics from King Aejang to King Heungdeok and had his daughters marry prominent figures. The marriage was intended as a measure to secure the king's power, as well as a reward for Chunggong's contribution to ending the Rebellion of Kim Heon-chang.

Therefore, we cannot reasonably claim that Donggung and Woljigung are two different palaces on the ground of Sujong's relocation to Woljigung and the marriage issue of Jeonggyo. All of these elements appear to be related to the precaution and follow-up measures against the Rebellion of Kim Heon-chang.

keywords :

Donggung, Taeja, Buwang, Bugun, Jeonggyo, Kim Heon-chang

